

# 2024년 대한민국 소비 풍경 이끌 10대 키워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트렌드 코리아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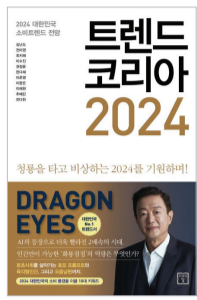
김난도 외 지음

분초사회, 호모 프롬프트, 육각형인간,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도파밍, 요즘남편 없던아빠, 스피노프 프로젝트, 디토소비, 리워드폴리탄, 돌봄경제,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들이다. 지금까지 매년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10개의 소비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해왔다.

내년 우리나라 소비 풍경을 이끌 10대 키워드를 담은 '트렌드 코리아 2024'가 발간됐다. 트렌드 연구자인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를 비롯해 전미영, 최지혜, 이수진 등 모두 11명의 연구자들이 저자로 참여했다.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 푸른 청룡의 해다. 상서롭다는 용의 해 모두가 목표를 화룡점정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김난도 교수는 "2023년 말부터 조금씩 속풍은 트이겠지만 여전히 변수는 많다.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2010년 이후 경험한 저금리·저물가의 트



렌드가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추세전환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2023년 연말부터 조금씩 긍정적인 지표들이 보이고 있다. 반등의 불빛이 비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4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다.

▲분초사회=시간의 가성비를 중요시하며 사용시간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을 지칭한다. 소수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시간은 중요한 자원이 됐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생활의 중요한 과제다.

▲호모 프롬프트=프롬프트는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인간이 던지는 질문을 말한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 키워드가 호모로 시작한다는 것은 AI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역량인 사색과 해석력이 중요함을 뜻한다.

▲육각형인간=모든 기준 축이 딱자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 육각형이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외모를 비롯해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등(여섯 가지가 넘을 수 있음) 모든 면에서 육각형 인간을 선망한다. 완벽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의 활력이자 절망이면서 놀이다.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오늘날 일몰일가의 법칙은 더 이상 고정돼 있지 않다. AI 발달은 시간,

장소, 유통 채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일몰N'의 세상을 열었다. 이제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가 중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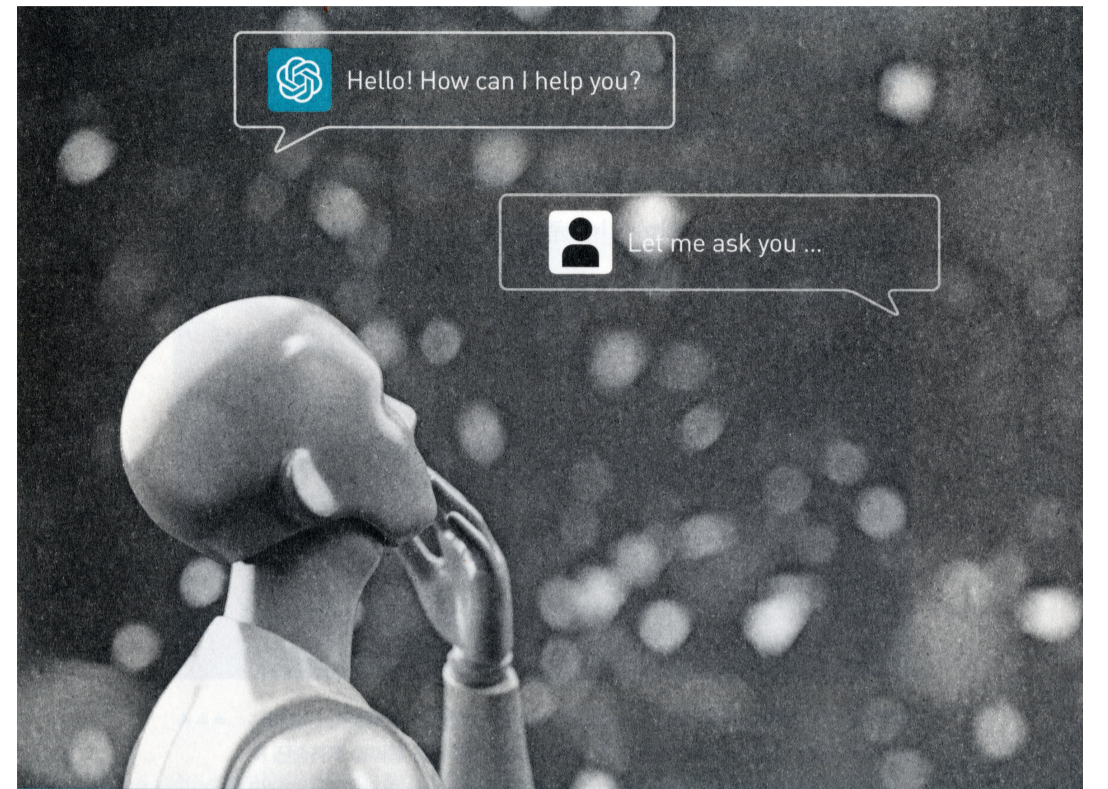
▲도파밍=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즉 도파민이 분출될 수 있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시도다. 분초사회에서 짧고 쉬운 재미를 넘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세로토닌과의 균형이 중요하다. 오늘날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 범람도 그 같은 연장선의 결과물이다.

▲요즘 남편 없던 아빠=권위적 가정에서 평등한 동반자로 역할이 바뀌어가는 요즘 남편의 모습을 말한다. 젊은 남편과 아내들이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사 노동과 육아에 동참하고 있다. 물론 가정뿐 아니라 기업, 소비의 풍경까지도 바꾸고 있다.

▲스핀오프 프로젝트=저예산과 유동적인 전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해보는 전략이다. 기업 입장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고 또 성공할 경우 예상 밖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들도 개발과 변화를 위해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디토소비="나도"라는 뜻의 '디토'(Ditto)는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 커머스를 추종해 구매하는 소비 현상을 말한다. 유통채널이 다양해지고 품질도 상향 평준화되면서 선택의 어려움과 실패의 두려움이 증가했다. 실패없는 선택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반영된 표현이다.

▲리워드폴리탄=유목적 라이프 스타일을 구가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은 더 이상 고정된 공간이 아니다. 정주인구보다 관계인구에 방점을



호모 프롬프트는 AI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사색과 해석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미래의창 제공>

찍은 유언도시 리워드폴리탄이 주목받는다. 불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시대에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돌봄경제=기존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풀어 지던 돌봄기능이 나라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취지다. 나노사회와 고독 속에서 모두 서로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됐다. 돌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는 분초사회 상처를 어루만지는 중요한 기능이다.

<미래의창·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보이차 문화와 공간

이양숙 지음

오랜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차를 꼽으라면 보이차를 빼 놓을 수 없다. 역사가 긴 만삼이나 알면 알수록 어려운 차가 보이차다. 무엇보다 원료와 제법법이 다양한데다 복잡하다. 전문가들도 "보이차가 다 같은 보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견지한다. 그 뿐인가.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다.

보이차의 진면목을 담은 책 '보이차 문화와 공간'은 보이차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저자는 '보이차 문화와 공간 연구'로 목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양숙 박사. 저자는 지난 2005년부터 보이차에 관심을 갖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보이차 생활을 시작했다 한다.

이 박사는 "원료와 제법법이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보이차라고 다 같은 보이차가 아니고,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다"며 "소비자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정보는 과학적 분석에 의한 자료와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보이차를 기술한다. 웰빙 열풍과 함께 차의 인기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과 맞물려 보이차는 가장 핫한 차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책에는 보이차는 무엇인가라는 정의에서부터 제조법, 보관법, 음다법 등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보이차의 이론과 진실을 기술해 있다. 보이차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저자는 차실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도 설명하고 있다. 단순한 기호 음료 이상의 효과, 명상을 통한 심신의 안정이나 타자와의 소통을 위한 차라면 잘 차려진 차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저마다 여건과 상황에 맞는 차실 설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론이침·3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어디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던가요

이근후·이서원 지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들 한다.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잘해보고자 노력하지만 헛수고가 되는 일도 다반사다. 인생의 스승이 필요한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전해주는 책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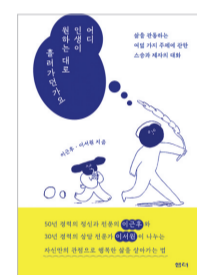
50년 경력의 정신과 전문의 이근후와 30년 경력의 상담 전문가 이서원이 펴낸 '어디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던가요'는 삶의 고민거리에 대해 대담한 내용을 엮은 책이다.

스승과 제자 사이이기도 한 두 저자는 자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파스한 시선으로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보듬어주고 명쾌한 해답을 준다.

책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할 법한 '자존', '관계', '위기', '육망', '확신', '비움', '성장', '행복'이라는 8가지 주제를 두고 나눈 이야기를 담았다.

1장에서는 삶의 주체로서 나다움을 찾는 일에 대해 2장은 공존과 소통의 시대에 필요한 적절한 인간관계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3장은 살면서 마주한 위기의 순간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4장과 5장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육망과 의심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의 방향을 고민한다. 6장과 7장에서는 무거운 마음을 견디고, 비움을 통해 성장하는 삶에 대해, 8장에서는 나만의 관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 기한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이번 생에 한 것이 없다고 너무 한숨 쉴 필요 없어요. 마음 편하게,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행복한 날도 온답니다."



<셋터·1만7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라이더, 경성을 누비다

김기철 지음

1930년대 '합'한 경성의 모습을 알고 있는가. 예술가들이 모여 10전짜리 흥차 한 잔을 기울이던 아지트 '낙파라'. 당시 탕남을여의 마굴이라 손가락질받던 경성 아파트의 등장. 이상의 미스코시·박태원의 화신 등 백화점을 사랑한 모던보이들…….

급작스러운 근대화를 맞이한 100년 전 조선은 찬란한 세계로 진일보했지만, 동시에 전통적 삶에 대한 환상통을 앓았다. 것을 쓰고 수염을 기르던 과거사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들어온 신문물은 전근대와 근대 사이에서 혼란을 만들었다. 새로 생겨나가는 비행기 노선과 전철은 새로운 '경험'이면서 '육망'으로 자리매김했다.

김기철이 펴낸 '라이더, 경성을 누비다'는 신문과 잡지 사료를 통해 당시 경성의 모습과 육망을 들여다본다.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조선일보 사료연구실장, 문화부 학술전문기자로 일하며 쌓아온 문화역사적 소양을 녹여 냈다.

시간을 거슬러봐도 문명발달사 앞 인간의 욕심이란 비슷한 모습으로 비친다. 당시 만연했던 문화주택 건축 열기와 허영심 등은 현대에도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이다. 또 독립투쟁, 조선인들의 고군분투기 등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26년 3월 9일 아침 경성역 앞에 인력거 640대가 몰려들었다. 미국을 비롯한 38개 나라에서 온 세계 일주 관광객 637명을 맞이 위해서였다. 이 대규모 관광객은 하루 전인 8일 오후 2만 톤 기선 라코니아호를 타고 인천항에 입항해 임시열차로 경성까지 이동했다"

구체적인 조선의 풍경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인의 발을 닦힌 이동수단은 단연 인삼적. 라이더들이 분주히 쏘다니던 골목골목부터 도쿄, 울산, 대련 등지를 잇는 여객선에 얽힌 비화에서 문명개화의 이모저모를 볼 수 있다.



<시공사·1만30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